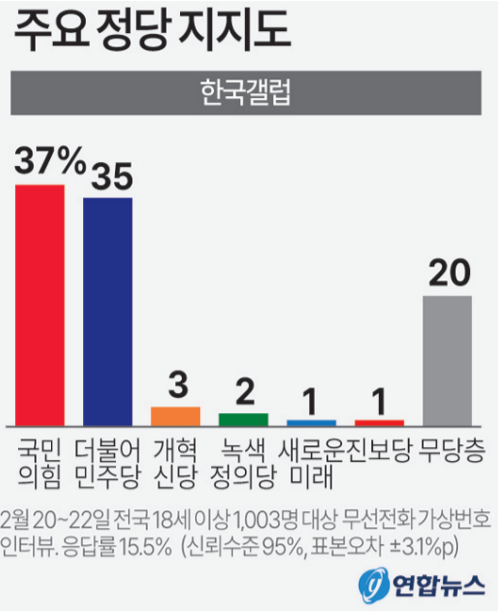


# ‘지지율 1%’ 이낙연 신당 ... 총선 영향력 미미할 듯

갤럽 조사, 위기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과 결별 뒤 급락  
호남지역서도 2% 그쳐  
국민의힘 37%·민주당 35%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개혁신당과 결별을 선언한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호남지역만을 놓고 보면 지지율은 2%였다.

새로운미래는 개혁신당과 합당 상태에서 4~6%대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분당 직후 1%의 지지율로 급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새로운미래 지지율은 1%였다.

지난 20일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다시 분리되면서 두 정당을 각각 조사한 결과다.

직전 조사에서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 지지율은 4%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와 동일한 37%, 더불어민주당이 4%p 오른 35%로 나타났다. 녹색정의당은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0%로 나타났다. 광주·전라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62%)보다 5%p 올라 67%를 기록했다.

새로운미래는 광주·전라지역에서, 개혁신당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광주·전라에서는 새로운미래가 2%, 개혁신당이 2%를 차지했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새로운미래 1%, 개혁신당 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전 조사보다 조금 올랐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8%로 각각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2월 3주차(2월 13~15일)보다 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그대로였다. 긍정 평가는 1월 2주 차 이후 3주 연속 하락하며 2월 1주 차 조사에서 29%까지 떨어졌다가 2주 연속 다시 올랐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외교'(17%), '외대 정원 확대'(9%), '전반적으로 잘한다'(6%), '경제·민생'(5%), '결단력·추진력·독심'(5%), '국방·안보'(4%), '보건의료 정책'(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전정권 극복'(3%), '서민 정책·복지'(3%), '공정·정의·원칙'(3%) 순으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6%), '독단적·일방적'(12%), '소통 미흡'(10%),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7%), '외교'(6%), '김건희 여사 문제'(3%), '공정하지 않음'(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익표 “공천갈등 사실 아냐...지도부, 현안 원활히 소통”

‘당내 투톱 갈등’ 보도 진화 시도  
“열린 태도로 해결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공천 파동’에 대해 조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비명 찍어내기’ 논란을 둘러싼 계파 간 신경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당내 투톱 갈등’ 설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고, 당 선관위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경선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 ‘공천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애를 쏟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과 관련한 당내 갈등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자심사 7차 발표 결과 단순공천 17명 중 친명(친이재명)계가 14명, 비명계는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펼치도록 해 계파 간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우리 당의 공천에 마치 큰 갈등과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모든 현안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신이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한 것을 두고 ‘당내 투톱 갈등’ 등을 제목으로 한 보도가 잇따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당시 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현직 강원도당위원장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의

서울 은평을 지역구 경선 참여 결정,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경선 여론조사 업체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선관위도 4:10 총선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업체 중 최근 공정성 논란을 빚은 ‘리서치디엔에이’를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리서치디엔에이는 ‘조사에 문제가 전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에 조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민주, 총선 공천 ‘올드보이’ 배제하나

박지원·정동영 등 대상 컷오프 여부 본격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천에서 소위 ‘올드보이’ 인사들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소위 올드보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 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드보이 인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한 당 내부와 국민 여론 등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고 말하며 새 인물을 앞세운 ‘공천 물갈이’ 의지를 표명한 만큼 올드보이 인사들의 공천 여부가 주목받았다.

박 전 원장과 정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모두 5선 도전에 나섰다.

1942년생인 박 전 원장은 초선 윤재갑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상태다.

17대 대선 후보를 지낸 정 전 의원은 1953년생으로 재선 김성주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병에서 5선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 아토피 초등학교, 장성으로 유학오세요

## 아토피 유학 설명회

- 장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 일시 : 2024년 02월 28일 (수요일) 15:00

## 우리 아이 아토피! 온 마을이 함께합니다

- 피부과 전문의 및 한의원의 정기 진단 진료
- 통합의약의 입장에서 전문약사가 진행하는 숲이 보낸 처방전
- 숲해설가 및 산놀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숲속 놀이
- 놀이 전문가가 진행하는 황토길 산책 및 맨발걷기
- 전문한의사를 한방주치의 제도 아토피 치료
- 교육심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 숲에서 이루어지는 1박2일 가족캠프

## 특별혜택 - 거주 펜션 지원 (선착순 30명)

축령산 자연속에서 신나게 놀아요  
아토피 관련 치유 프로그램  
다양한 방과후 특별교육(물놀이 숲놀이)

## 1급수 축령산 모암저수지

어린이 물놀이터, 숲놀이터  
개장예정

전라남도 장성교육 지원청 (061) 390-6000